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5. 3.(목) / 총 3매(본문2)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이기림, 주무관 이동우 • ☎ (044) 201-3852, 3849
보 도 일 시		2018년 5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자율주행 스타트업 소네트...중소기업 최초 임시운행 허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 창업기업...차선인식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

□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 들 수 있게 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(주)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.

○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*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.

* 자동차업계: 현대차(15), 기아차(2), 쌍용차(1), 아우디(1), 모비스(1), 만도(1)
 IT·통신·전자: 삼성전자(3), KT(2), 네이버랩스(1), LG전자(1), SKT(1), 소네트(1)
 연구기관: 융합기술원(3), 전자통신원(2), 교통안전공단(2), 자동차부품원(1)
 대학교: 서울대(4), 한양대(2), KAIST(1)

○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의 연구원이 창업(17. 10.)한 기업으로,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

□ 소네트의 이번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,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(이하 알고리즘)을 활용한다.

- 소네트는 향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표준 기반(플랫폼)을 제작하고,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키트(시스템 일체)를 개발할 계획이다.
-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도입('16. 2.)하고,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목적의 실제 도로 주행을 지원해왔다.
 - ※ 국토부는 소네트의 소재재인 대구시에 대해 '16년부터 정밀 도로 지도를 구축(약 74km)하여 제공해왔으며, 올해에도 추가 구축할 예정
- 나아가, 자동차 제작·통신·부품사 등 다양한 업계의 대·중·소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「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」를 발족('18. 3.)하여 학술 토론회 등 업계 간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허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 - “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연구·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여러 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연계·협력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기림 사무관(☎ 044-201-385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(주)소넷 자동차 사진

